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8권 제3호(2022): 37-48

접수일(2022년 9월 17일), 수정일(2022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2022년 9월 27일)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22.18.3.37>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

김도원

(영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범죄학 석사과정)

문인수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

김도원* · 문인수**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상활동이론을 바탕으로 피해요인을 정서적·신체적 취약성, 보호자 특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사회적 양태가 변화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현상은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부찬주(2018)의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피해 영향요인 실증연구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일반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영향요인 연구의 역사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일반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9년에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최종분석에 총 2,246명을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취약성, 차별피해 경험, 학교생활 어려움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신체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차별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 전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정서적 취약성을 낮추고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 문화적응스트레스, 신체적·정서적 취약성, 보호자 부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School Violence in Multicultural Youth

Do Won, Kim* · In Soo, M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victims by organizing them into emotional and physical vulnerabilities and guardia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theory of daily activities. As the social pattern of adolescents changes, our society should no longer turn a blind eye to the phenomenon of school violence against multicultural adolescents. However, as explained in the empirical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damage by Bu Chan-ju (2018), studies on school violence damag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 석사과정 / 영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범죄학(제1저자)

** 조교수 /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신저자)

* A Master Student / Department of Criminology at Young San University(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Youngsan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history of studies on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in general adolescents. In other words, in Korea, there is a lot of research on the damage of school violence by general adolescents,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the damage of school violence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damage of school violence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analyzing a total of 2,246 people in the final analysi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econd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9.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vulnerabil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and level of difficulty in school life were influenced by factors influencing school violence damag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and physical vulnerability, the more experienced discrimination damage, and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 entire school life, the mor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damage. Based on this,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reduce the emotional vulner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improve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Key words : Multicultural Youth, School Violence, Cultural Adaptation Stress, Physical-Emotional Vulnerability, Absence of a Guardian

1. 서 론

2021년에 보도된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2015년 45,537명 이었으며, 2016년 261,898명, 2017년 268,221명, 2018년 283,932명, 2019년 304,891명, 2020년 317,903명, 2021년 329,2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 또한 꾸준히 발달되어야 한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 따르면 일반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보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가 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굿뉴스, 2022). 다문화 가정은 현재 우리사회에 깊숙하게 정착하여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를 포함하여 이후 우리사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선화·이은경, 2017; 3-32).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사회적 양태가 변화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현상은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부찬주(2018)는 일반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 연구의 역사에 비해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피해 영향요인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반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인 다문화청소년은 이중 언어 문제, 외모차이로 인한 편견, 이중경험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서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김원영·김경식, 2020; 125-150). 이러한 경험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게 하며 우울과 같은 부적인 현상을 높이고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김희자, 2008). 또한 이러한 관계적어려움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한상철, 2012). 다문화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고, 타인과 사회집단과의 갈등을 겪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이중문화에 대한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곽지영, 2020).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보다 더 넓은 사회인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 등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함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이민술·문국경, 2021; 103-125).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 청소년들 역시 학교 내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하성·우룡(2007)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 중 외모로 인해 친구들

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8%였으며, 친구 사귀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31%,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학교 및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학이론 중 하나인 일상활동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을 다룬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특히 주류문화에 동화되길 원하는 압력을 받은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다(Berry, 1997).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국인 어머니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언어발전이 느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가지게 된다(송선진,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다른 국적, 청소년의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고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김은경·김종남, 2016). 한광현·강상경(2019)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아지며, 불안과 우울, 위축과 같은 내적 문제나 약물 남용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분노, 학교부적응 등의 외현화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이탈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최경란·홍지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부정적인 취약집단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정서적 취약성 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교우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주호, 2019). 강화·배은경(201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성

장하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쉽게 경험하며, 일상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2.2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은 "인간은 쾌락주의적이며,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동기화된 범법자, 범행에 적합한 대상물, 대상에 대한 감시 가능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 즉, 범행동기를 가진 사람 잠재적 범법자가 존재하며, 적절한 대상이나 잠재적 피해자가 있고,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할 수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감시가 없을 때 범죄 가능성은 증가한다(Akers, et al., 2017).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개인들보다 집 밖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Cohen & Felson, 1979).

일상활동이론을 종합하면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을수록, 보호능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할수록,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성이 클수록, 특정 범죄의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상활동이론에서 언급된 범죄에 적절한 피해자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취약성이다.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취약성은 일반학생과 달리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긴장을 일으키며 이는 정서적 취약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은 부정적인 취약집단 구성원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정서적 취약성 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교우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Harry, 1982; 정주호, 2019 재인용).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에 1차 ‘다문화 청소년패널데이터’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467개의 자료에서 분석 관련 주요 변수의 결측률이 높은 변수를 제외하고, 최종 2,246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3.2 주요변수

3.2.1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피해 경험으로 “지난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놀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를 “1=한 번도 없었다. 2=한 달에 1-2번 있었다, 3=한 주에 1-2번 있었다, 4=거의 매일 있었다.”로 측정된 값을 “1=있다. 0=없다”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2.2 취약성

이 연구의 독립변수 중 하나는 취약성이다. “다른사람이(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0=

스트레스 없음, 1=스트레스 있음”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0=그렇다, 1=그렇지 않다’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0=어려움이 있다, 1=어려움이 없다”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이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0=있다, 1=없다”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3.2.3 보호자의 부재 : 방임 및 감독

감독의 부재로는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발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방임의 부재로는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값을 “1=있다, 2=없다”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보호자의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정도나 되나요?”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1=거의 없다, 2=1~2일 정도, 3=3~4일 정도, 4=거의 매일”로 측정된 값을 “1=있다, 2=없다”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2.4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부모님 외국인 여부, 학업 수준,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측정된 값을 “1=남자, 0=여자”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부모님 외국인 여부는 “부모님이 두분 다 외국인 =1, 아버지가 외국인=2, 어머니가 외국인=3” 지역규모는 “1= 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표 1>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067	49.0
	여자	1132	51.0
연령	min=9 max=13 M=10.05 SD=.289		
부모님 외국인 여부	어머니	1825	81.4
	아버지	56	2.5
	두분 다	362	16.1
차별피해경험	있다	124	5.5
	없다	2122	94.5
학업 성적 수준	min=1 max=5 M=3.40 SD=.768		
경제적 수준	min=1 max=5 M=2.75 SD=.698		
지역규모	대도시	755	33.6
	중소도시	1158	51.6
	읍/면	333	14.8
학교폭력 피해 경험	min=.00 max=6.00 M=.4953 SD=1.18160		
정서적 취약성	min=6.00 max=24.00 M=8.0442 SD=2.70654		
신체적 취약성	min=1 max=4 M=3.48 SD=.615		
학교생활 전체 어려움	있다	671	29.9
	없다	1575	70.1
학교생활 친구 어려움	있다	306	13.6
	없다	1940	86.4
보호자 방임	min=5.00 max=20.00 M=8.1924 SD=3.24911		
보호자 부재	있다	841	38.4
	없다	1368	61.6

이 연구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주요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 49.0%, 여학생 31.0%였으며, 부모님 외국인 여부는 어머니만 외국인인 경우가 81.4%, 아버지만 외국인인 경우가 2.5%, 두분 다 외국인인 경우가 16.1%였다. 학업 성적 수준은 평균 3.40, 경제적 수준은 평균 2.75이다. 지역규모는 대도시 33.6%, 중소도시 51.6%, 읍/면 14.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취약성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낸 정서적 취약성은 평균 8.04이었고, 신체적 취약성의 평균은 3.48이었다. 차별 피해 경험은 있음 5.5%, 없음 94.5%이었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에서는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음 29.9%, 없음 70.4%였고,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있음 13.6%, 없음 86.4%였다. 방임수준에서 부모 방임 평균은 8.19였고, 방과 후 보호자 부재는 있음이 38.4%, 없음이 61.6%였다.

<표 2> 주요변수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차이

구분		빈도		통계량(p)
부모님 외국인 여부	어머니	M=.38	SD=.91	F=.637
	아버지	M=.52	SD=1.12	
	두분 다	M=.50	SD=1.21	
성별	남자	M=.38	SD=1.04	t=-5.159***
	여자	M=.65	SD=1.34	
지역 규모	대도시	M=.45	SD=1.11	F=.118
	중소도시	M=.54	SD=1.25	
	읍/면	M=.60	SD=1.28	
보호자 부재	있다	M=.51	SD=1.20	t=-.443
	없다	M=.53	SD=1.23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 평균차이는 t값이 -5.519, 유의확률은 .000으로 .001보다 작은 수치를 보인다. 즉, 성별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통계량에서 남자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경험과의 상관관계

변수	통계량(p)	변수	통계량(p)
연령	$r=.005$	문화적응 스트레스	$r=.251^{***}$
학교 성적	$r=-.083^{***}$	신체적 건강	$r=-.164^{***}$
경제적 수준	$r=-.011$	보호자의 방임	$r=-.109^{***}$

연령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보호자의 방임은 학교 폭력피해경험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학교성적과 경제적 수준, 신체적 건강은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표 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표준오차	B	t값	유의확률
성별 (ref=여자)	.043	1.127	15.534***	.000
연령	.076	-.065	-.857	.392
아버지만 외국인 (ref=양부모외국인)	.146	-.157	-1.070	.285
어머니만 외국인 (ref=양부모외국인)	.061	.081	1.317	.188
학업 성적 수준	.030	.083	2.741***	.006
경제적 수준	.031	-.009	-.278	.781
지역규모 대도시 (ref=읍면지역)	.068	-.114	-1.674	.094
지역규모 중소도시 (ref=읍면지역)	.065	-.089	-1.385	.166
정서적 취약성	.009	.045	5.006***	.000
신체적 취약성	.036	-.190	-5.219***	.000
차별피해 경험 (ref=없음)	.101	1.127	11.173***	.000
학교생활 전체 어려움	.054	.242	4.507***	.000
학교생활 친구들과 어려움	.073	1.129	15.534***	.000
부호자 방임	.007	-.002	-.242	.809
보호자 부재	.045	-.050	-1.111	.267

다문화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와 취약성과의 영향 관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4.38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190$ 으로 19.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942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서적 취약성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006,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정서적 취약성은 채택되었다. 즉, 정서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에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취약성은 t값이 -5.219로 역시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취약성이 클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경험은 t값이 11.173,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즉, 차별당한 적이 있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움은 t값이 4.507,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즉,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 친구들과 어려움은 t값이 15.534,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즉, 학교생활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와 보호자의 부재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방임은 t값이 .242(p=.809)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방과 후 보호자의 부재는 t값이 -1.111(p=.267)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다문화 학교 폭력 피해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먼저, 성별은 t값이 4.538, p값은 .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즉, 남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외국인 여부는 t값이 -1.070(p=.285)로 기각되었다. 어머니의 외국인 여부도 마찬가지로 t값이 1.317(p=.188)로 기각되었다. 학교성적은 t값은 2.741, p값이 .006로 채택되었다. 즉, 성적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t값이 -.278(p=.781)로 기

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 중 대도시는 t 값이 -2.212 , p 값이 0.94 로 기각되었다. 중소도시는 t 값이 $-1.385(p=.166)$ 로 기각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영향 요인을 검정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업수준이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다문화 청소년이 여자 다문화 청소년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으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경험 영향요인으로 정서적, 신체적 취약성과 차별피해경험, 학교생활 전체적, 교우관계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인 취약성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차별 피해경험이 있을 때 학교생활 전반적 어려움,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취약성을 낮추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에 대한 교육을 발달·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성장의 추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한동안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성장속도에 비해 언어, 제도, 문화, 가치관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교육이나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서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원만한 또래친구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던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더욱 전문적인 다문화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예방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개발되어야 한다. 정서적 취약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응 프로그램 혹은 원만한 또래친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예방에 대한 더욱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곽지영(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165-188.
- 강화·배은경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82.
- 김원영·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125-150.
- 김은경·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125-150.
- 부민서·심혜인·조윤오 (2018)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과 보호자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3), 123-140.
- 송성진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 시사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민솔·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103-125.

이선화·이은경 (2017)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3), 3-32.

정우성·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7-88.

정주섭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이중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15(1), *한국범죄심리연구*, 105-128.

정주호 (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최경란·홍지영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347-374.

한광현·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한상철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39-258.

홍성초·조제성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유형별 범죄이론 영향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209-221.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s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저 자 소 개]

김 도 원 (Do Won, Kim)

2022년 2월 학사

E-mail : dudrud12588@ysu.ac.kr

주요경력

2022-현 재 영산대학교 교육조교

문 인 수 (In Soo, Moon)

2011년 8월 경찰학 학사

2014년 2월 경찰학 석사

2017년 2월 경찰학 박사 수료

E-mail : policemoon@ysu.ac.kr

연구분야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실태조사

주요경력

2019-현 재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2021-현 재 한국치안행정학회 연구간사

